

기억의 화신이 되는 토대는 기억과 봉사다.

오늘 밥다다는 매우 귀중한 그의 보석들을 보고 있다. 보석인 너희들은 각자 단계의 위치에서 빛나고 있는 밥다다의 장식이다. 오늘 암릿 벨라부터 밥다다는 그의 장식을 (그의 보석들을) 보고 있었다. 물질세계에서 너희는 곳곳을 꽃들로 치장한다.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이 하는 모든 노력을 저 위에서 계속 지켜본다. 오늘 이날 너희 자녀들 모두가 마두반에서 (순례를 하며) 곳곳을 다닐 때 밥다다도 역시 너희 자녀들과 함께 그 장소들 각각을 순회한다. 마두반에는 네 군데 특별한 순례 장소가 만들어져 있고 너희들은 그곳들을 순회한다. 신봉자들 역시 순례 장소 네 군데에 각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너희가 이날 특별 순회(순례)를 하듯이 너희의 신봉자들도 너희를 따라왔다. 너희들 모두 이 장소들을 방문하느라 줄을 서듯이 너희의 상을 숭배하는 신봉자들도 역시 너희를 일별하려고 줄서서 기다린다.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구루가 들려준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마찬가지로 합류시대에 너희가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너희들의 진실된 행동까지도 위대하다, 즉 그것들은 기념비가 된다. 이것이 합류시대의 특별함이다. 신봉자들은 신의 주위를 한 바퀴 돌지만, 신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느냐? 그의 자녀들을 따라서 순회하고 있다. 그는 자녀들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른다. 매 행위마다 그는, “오너라 자녀들아, 자, 와라, 자녀들아!” 한다. 이것도 역시 특별함이다. 그는 너희 자녀들을 주인으로 만들고 그 자신은 아이가 된다. 그가 매일 아침 너희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신이 너희를 그에게 속하도록 만들었느냐, 너희가 신을 너희에게 속하게 했느냐?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속하도록 만들었느냐? 밥다다는 자녀들이 신을 그들에게 속하게 만들었다고 느낀다. 자녀들은 총명하고 아버지 역시 영명하다. 너희가 언제든 그에게 오라고 지시하면 그는 거기에 와 있다.

오늘은 만남을 축하하는 날이다. 오늘에 대한 축복은 “한결같은 기억의 화신이 될 지어다!” 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의식을 항상 변함없이 경험하느냐?

너희가 한결같은 기억의 화신이 된 데 대한 보답으로 오늘 밥다다는 너희 모두와의 만남을 축하하려고 왔다. 기억과 봉사의 균형은 너희를 자동적으로 기억의 화신으로 만든다. 너희의 지각에는 오직 바바 뿐이고, 너희는 “바바”라는 말을 끊임없이 입에 달고 지낸다. 너희는 세계를 유익하게 할 봉사를 위해서 발걸음 하나하나를 내딛는다. 브라민의 삶에서 너희의 생각 하나마다 기억이 들어 있고, 행위 하나마다 봉사가 들어 있다. 만일 너희가 기억도 봉사도 하지 않는다면 브라민의 생은 없다. 앗차.

매우 귀중한 보석인 모두에게, 끊임없이 기억의 화신이 되는 축복을 받은 모든 자녀에게, 매 행위 하나하나가 진실된 행위인 위대한 황제 영혼들에게, 변함없이 아버지의 사랑에 넋을 잃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에게서 협조 받는 자들에게, 그런 특별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자기의 마음, 지각, 산스카라에 대해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자들은 축복을 주는 형상이 된다.

오늘 축복의 공여자이며 행운의 공여자인 아버지는 대 기부자이며 축복의 공여자인 그의 자녀들을 보고 있다. 지금 현재 너희들 모두 각자의 능력에 따라 대 기부자로서 배역을 연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최종 시기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너희가 축복의 공여자로서의 배역을 실질적으로 연기해야 하는 것은 특히 지금이다. 대 기부자인 너희들은 특히 말을 통해서 봉사하는데, 너희들 중에서 마음을 통해서도 동시에 봉사하는 퍼센티지는 약간 적다. 너희가 말을 통해서 봉사하는 비율이 마음을 통해서 봉사하는 비율보다 더 높을 것이다. 축복의 공여자로서는, 너희가 마음을 통해 봉사하는 비율이 말을 통한 봉사의 비율에 비해 더 높다. 마음을 통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너희가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으로 더 짧은 기간 내에 더 큰 봉사의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축복의 공여자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너희는 우선 첫째로 너희들 자신에 대해 순수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너희는 또 특히 1초에 생각을 모두 통제하는 훈련을 쌓을 필요도 있다. 하루를 지내는 동안 순수한 생각의 대양에서 파도를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 순수한 생각의 대양의 해저까지 내려가고, 또 원할 때는 침묵의 화신이 되어라. 이 얘기는 너희의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완전히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너희 마음의 힘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 힘과 더불어 영혼의 다른 두 가지 힘, 즉 너희의 지각과 산스카라까지, 이렇게 세 가지 힘을 모두 다 영혼인 너희 통제하에 둘 필요가 있다. 만일 세 힘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 너희는 축복의 공여자의 화신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한껏 봉사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위대한 야기야 (희생의 불)라는 막대한 과업을 창조해내었듯이 올해는 이 위대한 야기야를 위해서 특별한 대 기부자의 배역도 역시 행해야 한다. 영혼의 세 가지 힘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너희를 가로막는 약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약점 역시 이 거대한 야기야에 희생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는 무한한 과제다. 이 무한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너희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들에게는 좋은 염원을 품어야 한다. 모든 힘을 다 가진 공여자 마스터가 되고, 또 너희의 고귀한 생각으로 축복의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서 대양의 해저까지 내려가고, 지극히 상냥하고 평화로운 등대이며 발전소가 되어라. 이것이 너희가 되어야 할 모습이며 너희는 이 형태를 통해서 봉사해야 한다.

너희가 봉사의 무대에 올라 물리적인 편의시설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너희는 침묵의 형태를 경험할 필요도 역시 있으며, 이런 식으로 성공의 화신이 되어라. 너희는 봉사를 위해 아주 좋은 시설들을 만들었다. 무한한 봉사를 위해 너희가 이 야기야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으니, 너희는 이 거대한 집회의 야기야를 엄청나게 강력한 산티 쿤드 (침묵의 큰 통)로 만들어야 한다. 봉사를 위한 희생의 불은 말로써 세상의 영혼들에게 봉사할 밭의 땅을 일군다는 뜻이다. 밭을 갈 때는 흙을 파서 뒤집는다. 밭을 일궈야만 씨를 심을 수 있다. 차분함과 너희 침묵의 힘으로 그 씨앗에 물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대단한 야기야를 만들었으니 이제 봉사의 주된 부분을 끝냈다고는 생각지 마라. 너희들은 밭을 갈고 씨를 파종했다. 노력이 많이 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너희들이 대 기부자로 봉사함으로써 뿌린 씨에서 열린 결실을 추수하기 위해서 축복의 공여자로서도 역시 봉사해야 한다. 축복의 공여자가 된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축복으로 가득하게 유지한다는 뜻이다. 너희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느냐? 너희들 각자 이 신성한 생을 취하자마자 맨 처음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축복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뭔가를 갖게 한다. 어떤 축복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성취를 쉽게 다 갖게 되었느냐? 너희들 각자가 다 다른 축복을 받았느냐, 너희 모두를 위한 축복이 동일한 한 가지 축복이나? 너희들이 받은 축복에 관해서 얘기할 때 너희는 각자 다른 축복을 얘기한다. 하지만 너희들 모두 동일한 하나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은 너희로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아버지가 너희 모두를 받아들였다는 축복이다. 영혼인 너희가 얼마나 약한지 또는 너희에게 어떤 용기가 결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생각이나 고려도 하지 않고, “네가 무엇이든, 어떠하든, 너는 나의 것” 이라는 것이었다. 너희가 그것을 복권이라 부르든 행운이나 축복이라 부르든, 그것은 1초에 너희에게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었고, 그것도 아버지가 친히 너희에게 직접 주었다! 바바는 너희가 그에게 속한다는 의식의 스위치를 켜다. 그렇게 엄청난 행운을 받는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너희가 결코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어쨌든 행운의 공여자 아버지는 너희에게 그런 행운을 축복으로 주었다. 이 축복은 여러 생 동안의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1초에 너희에게 주었다. 이 축복에 대한 의식의 변함없는 화신이 되는 것이 곧 축복의 공여자가 된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단 1초 만에 너희들 각자에게 똑같은 이 축복을 주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든 연로한 노인이든, 너희가 높은 지위를 가졌든 그저 평범하든, 너희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너희가 어떤 종교에 속하든, 어느 나라 출신이든, 학력이 높든 무학이든 상관없이 너희는 각자 똑같은 축복을 받았다. 이 축복을 생활 속에 적용해서 그 의식의 화신이 되는 데서 너희는 등수대로다. 너희들 중 일부는 끊임없이 이 축복의 화신이 되고, 나머지는 그저 때때로 그것을 의식할 따름이다. 이 차이로 인해서 염주가 두 개 만들어진다. 끊임없이 이 축복의 화신인 자들의 염주는 끊임없이 돌리며 기억된다. 이 축복을 그저 이따금씩만 사용하거나 이 축복을 더러 가끔씩만 의식하는 자들의 염주의 구슬은 가끔 돌려질 뿐이다. 전자는 축

복의 공여자들이다, 즉 그들은 이 첫 번째 축복의 변함없는 화신으로 머문다. 한결같이 아버지에게 속하는 자들은 남들도 역시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속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축복을 차지하는 데 너희는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았다. 아버지 자신이 너희를 입양했다. 그저 이 하나의 축복만 끊임없이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애쓰는 데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질 것이다. 너희가 애써야 하는 것은 축복을 잇을 때다. 자 이제 축복의 공여자인 너희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힘으로 봉사해라.

올해는 너희의 힘과 미덕들을 써서 약한 영혼들을 아버지 더 가까이로 데려와라. 지금 현재 영혼들 대다수는 영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영적인 힘을 가짐으로써만 남들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성의 길을 따를 용기가 없다. 소망의 한쪽 다리만 그들에게서 보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들 자신의 힘을 써서 용기라는 두 번째 다리를 그들에게 줘야 한다. 오직 그제야 그들이 걸을 수 있게 되어 아버지 가까이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그들에게는 가까이 올 용기가 부족하다. 우선 먼저 너희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용기와 열의를 줘서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라. 너희의 협조를 통해서만 저 나약한 영혼들이 축복에 대한 권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축복의 공여자인 너희가 저 다리를 저는 자들이 걷게 만들어야만 그들이 거뜬거뜬 너희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일부는 너희의 신봉자가 되고 나머지는 너희의 백성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와서 빨리 가는 자들도 역시 일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올해 뭘 해야 할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위대한 이야기야에 대한 말을 모든 곳에 열성적으로 멀리 또 널리 퍼뜨려왔듯이 이 이야기야에 대한 과제와 더불어 산티 쿤드(침묵의 그릇)의 분위기와 파동에 대한 말도 역시 모든 곳에 퍼뜨려라. 이 위대한 이야기야를 위해서 너희가 새로운 그림을 만들고, 장식차량과 강연과 강단을 준비하듯이, 이제 모든 곳에 있는 너희 브라민들 모두 살아 있는 그림이며 등대이자 발전소이며 장식된 차량이 되어야 한다. 마음의 힘과 침묵의 힘에 대한 강연을 준비해라. 카르마티트 단계에서 강단에 올라 축복의 공여자로서의 배역을 연기해라. 오직 그제야 완성이 가까워질 것이다. 올해는 너희가 행할 무한한 봉사의 과제를 위해 “하나의 힘, 하나의 지원”이라는 계시의 구호 하나를 가지고서 너희 모두 집단적으로 봉사의 무대 위에 올라가야 한다. 브라민인 너희들 모두 이 과제를 완수하는 데 협조의 손가락을 보태야 한다. 마찬가지로 올해는 너희 모두 이 하나의 생각을 갖고 축복의 공여자의 실제 모습이 되어 이 무한한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이제 너희가 뭘 해야 할지 이해하느냐?

소리 속으로 들어오면서도 소리를 초월한 단계에 안정해 있는 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용기를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가까움을 통해 다른 영혼들을 가까이 데려오는 자들에게, 다리를 저는 자들이 경주하며 달릴 수 있게 하는 자들에게, 그런 대 기부자, 축복의 공여자들에게, 밥다다와 가까운 그런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다디들을 만나심.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냐, 너희가 시간에게 가까이 가고 있느냐? 너희가 시간을 가까이 가져오고 있느냐, 시간이 너희를 끌어당기고 있느냐? 드라마가 너희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느냐, 너희가 드라마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느냐? 너희가 주인들이냐, 드라마가 너희의 주인이냐? 드라마가 창조자냐, 너희가 창조자냐? 드라마에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너희는 많이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더 발전하면서 드라마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은 뭐든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너희가 하지 않을 정도로 드라마에서 일어날 일은 뭐든지 너희에게 아주 분명할 것이다. 드라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너희는 권위를 갖고 말할 것이며, 그때는 오직 일어날 것만 눈에 보일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의 보상이 너희에게는 아주 분명하듯이 드라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도 역시 뭐든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뚜렷할 것이다. 뭔가가 드라마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을 어떤 이가 아무리 많이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다는 말을 너희에게 아무리 많이 해도 너희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다, 지식으로 충만함을 토대로 너희는 일어날 일들의 주인이 되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든, 아니면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든 너희는 지식으로 충만함을 바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명료성의 힘을 가지고 권위로써 말할 것이다. 일어날 일을 너희가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는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들과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

다. 너희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 역시 권위다. 너희는 그런 권위를 가질 필요가 있고, 왕국은 너희의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이가 너희를 흔들려고 아무리 애써도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해서 너희는 모든 점에 있어서 권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홀로 머물러 있어야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고독하게 더 많이 머물수록 너희는 더 좋은 터칭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든 그것이 너희에게는 마치 현재의 순간인 양 선명해질 것이다. 현재 너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 장면도 역시 드라마의 휘장 뒤에 숨겨져 있다. 너희들도 역시 이 경험을 한다. 이런 이유로 올해 봉사에서 격변이 더 많을수록 너희들은 더 지하에 숨어 있어야 한다고 일러온 것이다. 새롭고 강력한 뭔가가 발명되는 동안에는 공개되지 않고 지하에 은닉된다. 홀로 고독 속에 머문다 함은 지하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잠깐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을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일을 하는 데 한 시간이나 심지어 반시간조차도 한 번에 짊을 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한 순간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5분 동안은 대양 깊숙이 들어가는 훈련을 쌓을 수 있다. 언제 누가 너희 앞에 오든 그는 너희가 여기에 없고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도 역시 제동이 걸릴 것이다. 심지어 그들이 말하기를 원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말을 통해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었을, 아주 분명한 대답을 받을 것이다. 사카르 바바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을 너희들은 보았다.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거나, 지시를 내리는 도중에도 바바는 문득 지하로 내려가곤 했다. 이처럼 지금 이 훈련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움직여 돌아다니는 동안 너희가 마치 이 세상에 없는 듯 세상에 완전히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남들이 보게 해라. 너희가 육신의 세계 너머로 가버린, 몸에 대한 일체의 의식을 초월한 천사라고 그들이 느끼게 해라. 비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너희 앞에 오는 이는 누구든 비전을 경험할 것이다. 초창기에는 비전들의 물결이 있었고 이에 관한 소식들이 거기서부터 퍼져나갔다. 그것을 사람들은 마술이나 뭔가 다른 것으로 여겼을지라도, 어쨌든 소리를 낸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너희가 이 단계를 가지고 경험의 형태로 비전을 줄 수 있을 때 계시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다. 사람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실질적인 결실을 경험할 것이다. 계시는 실질적인 결실을 받는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이를 두고 축복의 공여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 한다. 여기에 오는 자는 누구든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라. 말하는 동안에 너희가 사라져라, 그러면 남들도 역시 그 경험을 할 것이다. 이런 일도 역시 일어날 것이다. 지금 현재 너희는 말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경험하고 남들에게 경험을 주는 단계가 되면 너희는 1초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시간은 덜 걸리고 더 큰 성공을 달성할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누구에게 뭔가를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 저희도 그런 것은 다 압니다! 라 한다. 그들 역시 지식으로 충만해졌고, 자기들도 그걸 안다고 1초에 대답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듣는다. 자기의 어떤 특정한 잘못에 대해 어떤 시정을 받게 될 것인지도 역시 모든 이가 다 이해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식의 요점은 끝없이 많지만 경험은 부족하다. 누구에게든 1초에 힘의 형태이며 침묵의 형태가 되는 경험을 줘라, 그러면 그들이 입을 다물고 조용해질 것이다. 앗차.

축 복: 집회의 힘을 늘리는 데 너희의 무한한 지각을 사용해서 성공의 화신이 되어라.

집회의 힘을 늘리는 것이 브라민 삶의 첫째로 고귀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황을 옳다고 확인하면 대다수와 함께 해라, 이것이 집회의 힘을 늘린다. 이것에서 너희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관해 그 어떤 위대함도 보이지 마라.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집회를 분리시킨다면 그 훌륭한 아이디어는 평범해진다. 그럴 때는 비록 너희가 아이디어를 포기하더라도 그 버림 속에 행운이 들어 있다. 이런 식으로 너희는 성공의 화신이 될 것이며 가까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슬로건: 완전한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집중력을 더 늘려라.

*** 움 산티 O M S H A N T I ***